

■ 르포 - '광주 동구청장 보선' 대인시장·남광주시장 가보니...

“누가 나올지 관심 없다” 민심 싸늘

대선 야권 단일화엔 뜨거운 관심 20~40대 安·50대 이상에선 文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광주 동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는 많지만, 선거 분위기가 좀 처럼 뜨겁지 않다.

29일 광주일보 취재진이 만난 동구 주민들은 연말 대선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에 관심을 보일 뿐 동구청장 보궐선거에는 무관심했다.

10여명의 동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졌지만, 대부분은 어떤 후보들이 출마를 했는지도 모를 뿐 아니라 후보에 대해 알고도 하지 않았다.

이는 4·11 총선에 앞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빚어진 과열 선거인단 모집 탓에 ‘전직 동장 투신자살’이라

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많은 주민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되는 등 상당한 ‘후폭풍’이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대인시장 상인 나양수(51)씨는 “동구청장 후보들에겐 관심없다. 항상 선거에 나온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투표를 하더라도 기존 정치인은 뽑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영래(여·65·동구 계림동)씨는 “정치에 관심도 없고, 투표도 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많은 정치인이 선거 때만 되면 재래시장을 찾아 시장 발전 공약을 내놓지만, 재래시장 상권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됐고 이는 정치인들의 잘못 때문”이라고 정치에 대

한 혐오감을 드러냈다.

김모(49·동구 학동)씨는 “지난 총선에서 발생한 불상사는 동구 주민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치가 달라져야 하고, 시민들이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동구 주민들은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 간 야권 단일화에 대한 관심은 높았다.

정권교체를 위해 어떤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는 20~40대 젊은 층에서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고, 50대 이상에서는 문 후보에게 상당한 기대를 나타냈다.

그러나 여전히 두 후보에 대한 선택을 놓고 결정을 하지 못하는 유권자가 대부분이었다.

대학 휴학생인 안모(25)씨는 “정당을 보진 않지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과거사 등 역사인식에 문제가 많은 것 같다”며 “안철수를 선호하지

만, 안-문 후보 중 단일화된 후보에 투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영준(31·동구 운림동)씨는 “문 후보는 ‘친노 그늘’, 안 후보는 ‘정치 경험 부족’이라는 약점이 있긴 하지만, 어떤 후보가 단일화되든 그 후보를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광주 시장 상인인 유영진(53)씨는 “문재인 후보를 놓고 봤을 땐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지만, 문 후보가 딛고 있는 민주당이 뿌리가 썩어 새로운 나무를 심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에서 볼 때 깨끗하게 살아온 안 후보가 시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인시장 상인인 이금자(60·동구 서석동)씨는 “정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세력이 필요하고, 그 세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정치경험이 중요한 만큼, 그런 점에서 정치기반과 세력이 없는 안 후보가 문 후보에 약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손잡기 싫어”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빌딩에서 열린 골목상권 살리기운동 전국대표자대회에 참석, 사회자의 요청에 따라 손을 잡고 취재진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 취재진이 잡은 손을 위로 들어달라는 부탁에 박 후보가 손사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륜스님 “安후보 무소속이라 사회통합 도움”

전남도청서 ‘행복한 가정 만들기’ 특강



안철수 후보의 멘토 법륜 스님은 29일 “무소속인 안 후보가 오히려 사회 통합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정치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아니 간 (무소속인) 안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통합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당적을 버리고 대한민국 대

통령이 돼야 한다. 여야를 다스리는 대통령, 당적을 떠나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한다”면서 “당적이 없는 대통령은 차라리 아무것도 없으니 아무 편도 들 필요가 없고, 여야의 목소리를 모두 듣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도 더 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광주 동구청장 보선 공천이 시험대

文 “단체장 공천권 돌려주겠다” 약속 여론조사 지역특성 최대한 반영할 듯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지난 28일 민주당의 호남 기득권 역파를 위해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등의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광주 동구청장 보궐선거에서의 민주당 공천 방식이 주목되고 있다.

일단, 민주당 내외에서는 문 후보의 발언에 따라 동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이 과거보다 지역민의 목소리가 더 반영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선 정국에서 경선을 치르기에 시간이 촉박하고 절차가 복잡해

지난 4·11 총선 동구지역 경선에서 시민 선거인단 모집 외중에 투신 자살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도 구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여론조사 경선은 인지도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기존 지역 정치권의 역할 구도를 뛰어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동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이 개혁적 색채를 띠지 못한다면 후보단일화를 앞두고 그렇듯 안철수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게 밀리고 있는 문 후보에게 약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는 점에서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당내에서는 일단 서류심사와 지역실사, 적합도 여론조사, 지역별 상환 등을 고려해 예비 후보를 3~4명으로 압축한 이후, 최종 여론조사와 공신위 심사 결과 등을 병합,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예비 후보자의 인지도보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민이 요구하는 구청장의 역량 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이자 공신위원인 장병완 의원은 이날 “문 후보의 발언은 공천에서 당내 계파 차원의 입김을 차단하고 지역민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일단 다음 달 5일부터 공신위의 논의가 이뤄지면서 구체적인 공천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특히, “여론조사가 후보

공천 방법에 포함되기는 하겠지만 기존의 인지도 조사에서 벗어나 후보자의 적합도와 지역별 특성 등이 최대한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30~31일 예비 후보자 공모를 실시하고 다음 달 1~4일까지 예비 후보자 등록을 받은 뒤, 5일부터 본격적으로 공신위를 가동할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우암학원 창학 63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061) 360-5050

빛의만평 - 김중두

낙선하면 누가 책임질래?!

“기업만 크면 됩니까? 사람도, 사회도 같이 커야죠”

이해와 배려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들다
휴켄스 2012년 노사문화대상대통령상 수상

HUCHEMS
휴켄스주식회사

휴켄스, 상생의 노사문화
■ 6년 연속 무분류 임금협상 타결 ■ 자사주를 직원보너스로 지급 ■ 우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직원 정년연장과 근로시간 단축

회장 박연차
생산2팀 김진호
환경안전팀 이영원
해외영업팀 조경선